

전북도, 피지컬AI 재난로봇 거점 구축 박차

K-재난로봇 실증연구센터 추진
화재·붕괴·침수 등 실증 검증
480억 투입 국비 확보 본격화
AI·로봇산업 거점 조성 기대

전북도가 대형 화재, 붕괴, 침수 등 고 위험 재난과 안전점검현장에서 자율적 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AI 재난로봇을 개발·검증할 '피지컬 AI 기반 K-재난로 봇 실증연구센터' 구축에 주력하고 있 다.

지난 7일 도에 따르면 최근 대형 재 난과 각종 안전점검 현장이 늘면서 비 정형 환경에서 스스로 판단하고 임무 를 수행할 수 있는 AI 재난로봇의 필요 성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국내 관련 인 프라는 범용 로봇 기체의 성능을 평가 하는 하드웨어 중심 시설에 머물러 있 어, 피지컬 AI가 학습해야 할 비정형 복 합재난 상황의 동적 데이터를 확보하기 어려울 실정이다.

이번 사업은 이러한 공백을 메우며, '로봇·AI 등 신기술을 활용한 재난 대응 역량 강화'를 담은 제5차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2025~2029) 방향과 궤를 같이 한다.

사업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 간 사업비 480억 원(국비 430억·지방비

50억)이 투입된다. 센터는 재난특화 피 지컬 AI 모델 개발과 시제품 조립을 지 원하는 'AI 연구동', 대형 화재·붕괴·침 수 등 극한 재난 환경 등을 재현해 로봇 의 자율주행·탐지·조작 능력을 검증하 는 '실증 테스트베드', 실증·연구·현장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는 '데이터 관제 동'으로 구성된다.

도는 현재 자체 연구용역을 통해 사업 내용을 구체화해 행정안전부에 사업을 신청했으며, 내년도 정부 예산안 반영을 요구하고 있다.

실증연구센터는 로봇이 실제 재난과 흡사한 환경에서 미리 훈련받고 성능을 검증받는 '실전 훈련장' 역할을 한다. 현 장 투입 전 안전한 환경에서 시행착오 를 미리 겪음으로써, 실제 재난 상황에 서의 오작동이나 실패 위험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검증 체 계는 전북이 쌓아온 피지컬 AI 기술과 결합해 지역 신산업으로도 이어질 것으 로 기대된다.

전북은 센터의 최적 입지로 꼽힌다. 1 조 원 규모의 '피지컬 AI 기반 SW플랫 폼 연구개발 생태계 조성 사업'을 추진 하며 핵심기술 개발과 고성능 연산 플 랫폼, 실증 테스트베드를 갖춘 피지컬 AI 거점으로도 육성되고 있다.

여기에 현대차그룹 등 대규모 민간 투 자가 잇따르고 있고 익산 안전보호용복



지난 7월 3일 전북TP와 한국로봇융합연구원 협약식 <사진=로봇융합연구원>

합섬유기술지원센터, 김제 특수목적용 기계부품산업, 군산 침수재난안전산업 진흥시설 등 지역 주력 산업 기반은 재 난로봇의 내구성 향상 기술 개발에도 활용될 수 있다.

지난달 3일에는 전북테크노파크가 한 국로봇융합연구원과 재난안전 등 지역 로봇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제 결하며 국내 대표적인 로봇 연구 기관 과의 기술 개발·실증 협력은 물론, 인력 교류, 기술이전 등 사업 추진을 위한 토 대가 마련됐다.

도는 향후 관계 부처와의 협업 방안 마련과 국회 단계 예산 확보를 위한 대 응 논리 보강이 과제로 남아 있는 만큼,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재난로봇의 기 술적 특수성과 부처별 기능 분담 필요 성을 지속 강조할 계획이다.

특히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등을 방 문해 사업 당위성을 설명하는한편 지역 정치권과 함께 국회 단계의 예산 반영 을 이끌어낸다는 방침이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전 북은 피지컬 AI 기술 생태계와 실증 연 구 인프라가 결합된 국내 재난로봇 실 증 최적지"라며 "국회와 관계 부처를 적극 설득해 내년도 예산에 사업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정철 기자

한병도 “조희대, 노태악 후임 제청하라”

“선관위원 공백 해소해야”
내란사건 신속 심리도 주문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직무대 행 겸 원내대표는 지난 7일 '선관위 원장 장기 공백사태'와 관련, “조희 대 대법원장은 노태악 전 대법관 후 임을 제청하시기 바란다”고 촉구했 다.

한 직무대행은 이날 열린 원내대 행 겸 원내대표는 지난 7일 '선관위 원장 장기 공백사태'와 관련, “조희 대 대법원장은 노태악 전 대법관 후 임을 제청하시기 바란다”고 촉구했 다.

한 직무대행은 이날 열린 원내대 행 겸 원내대표는 지난 7일 '선관위 원장 장기 공백사태'와 관련, “조희 대 대법원장은 노태악 전 대법관 후 임을 제청하시기 바란다”고 촉구했 다.

한 직무대행은 이날 열린 원내대 행 겸 원내대표는 지난 7일 '선관위 원장 장기 공백사태'와 관련, “조희 대 대법원장은 노태악 전 대법관 후 임을 제청하시기 바란다”고 촉구했 다.

한 직무대행은 이날 열린 원내대 행 겸 원내대표는 지난 7일 '선관위 원장 장기 공백사태'와 관련, “조희 대 대법원장은 노태악 전 대법관 후 임을 제청하시기 바란다”고 촉구했 다.



한병도 원내대표

불신을 키우 는 일”이라 고 직격했다. 그는 “대법 원은 주요 내 란 사건에 대 한 심리를 신 속하게 마무

리 해야 한다”며 “최근 대법원이 한 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 안전부 장관에 대한 상고심을 전원 합의체에 회부한다고 밝혔다”고 밝 혔다.

그는 또 “특검법이 정한 6:3:3 원 칩에 따라 한 전 총리 사건은 바로 오늘, 이 전 장관 사건은 오는 12일 이 선고 기한이었지만 사실상 지켜 지지 못하게 됐다”며 “전원합의체 회부 결정이 내란에 대한 단죄를 지 연시키는 수단이 돼서는 안 될 것” 이라고 우려했다.

한 직무대행은 ‘정부의 부동산 세 제 개편’에 대해 비판하는 국민의힘 을 겨냥해 “국민의힘은 말로만 공급 을 외치지 말고, 주택 공급 법안 처 리에나 협조하라”며 “국힘은 공급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 인선 절차가 진행되는 기형적인 사태까지 벌 어 지고 있다”며 “헌법적 책무를 방기 하는 것이며 대법원장 스스로 사법

/서울=김영목기자

전북도 “2차 공공기관 이전 반영” 촉구

이지사, 정부 계획 적극 반영 요구
금융·농생명·첨단산업 경쟁력 강조
“국가균형성장 전북 몫 지켜낼 것”

전북도가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 발표를 앞두고 관련 기관의 전북 유치를 정부에 강력 촉구했다.

이원택 도지사는 지난 7일 2차 공공 기관 이전과 관련한 촉구 메시지를 통 해 국가균형성장 실현과 지역의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해 정부 계획에 전북 의 요구가 적극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 조했다.

이 지사는 “2차 공공기관 이전은 국 가균형성장을 완성하고 지역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국가 정책”이라며 “금융·농생명·미래첨단 산업 기반을 두루 갖춘 전북은 이미 준 비된 지역인 만큼 관련 기관 이전이 정 부 계획에 반드시 담겨야 한다”고 말했 다.

또 “172만 도민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정부와 국회에 전북의 목소리를 전하고, 공공기관 이전 본연의 취지인 국가균형 성장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 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이 지사는 지난달 22일 국

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2차 이전계획에 전북의 핵심 요구를 반영해 줄 것을 건 의했다.

혁신도시의 수용 여건과 금융·농생 명·미래첨단산업 경쟁력을 설명하고 이 전계획 수립 과정에서 정부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도 요청했다.

전북은 국민연금공단을 축으로 한 금 융도시 기반과 농생명 혁신클러스터, 새 만금 미래산업과 첨단제조 역량 등 국 가균형성장을 이끌 산업 경쟁력을 갖추 고 있다. 아울러 혁신도시와 연계한 기 관 수용 기반과 정주 여건도 넓혀가고 있다.

도는 발표 시점까지 국토교통부 등 관 계 부처와의 정책 협의, 대정부 건의, 국 회 공조를 이어가는 한편 이전 희망 기 관 유치와 기관별 맞춤형 전략 수립, 도 내 수용 여건 보안을 병행해 전북의 요 구가 계획에 반영되도록 총력 대응한다 는 방침이다.

이원택 전북자치도지사는 이에 대해 “전북은 공공기관 이전을 맞이할 준비 를 마쳤다”며 “정부 계획 확정부터 실제 이전이 마무리될 때까지 도정의 모든 역량을 하나로 모아 전북의 몫을 받 드 시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장정철 기자

윤준병, 경찰 수사심의위 법제화 추진

‘민주적 통제 강화법’ 대표 발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7 일 경찰 및 해양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중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사건관계 인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기존 예 규에 불과했던 수사심의위원회를 법률 로 격상하는 ‘경찰·해양경찰 민주적 통 제 강화법’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경 찰·해양경찰청의 수사심의위원회를 법률로 격상하여 법적 지위 명확화 및 민주적 통제 강화하기 위해 「국가경찰 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 률」·「해양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발의했다며 이같이 발의 배경을 밝 혔다.

현행법령에 따라 고소인·고발인·피 해자·피의자·피조사자 등 사건관계인 은 경찰 또는 해양경찰의 입건 전 조사 나 수사 절차 또는 결과의 적정성·적법 성이 침해되었다고 판단한 경우, 그 수 사 등이 적정성·적법성을 갖췄는지 심 의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경찰청과 해 양경찰청은 사건관계인이 수사심의를 신청할 경우 이를 심의하기 위하여 ‘수 사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법률이 아닌 행정규칙



윤준병 의원

인 예규에 근거 하고 있다. 예규 를 근거로 운영 되는 경찰과 해 양경찰의 수사 심 의 위원회 는 법적 기반이 미 흡하고, 독립성 을 온전히 보장하기 어려워 국민 권리 구제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윤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사건 관계인이 수사 절차 또는 결과의 적정 성·적법성이 침해되었다고 판단할 경 우 수사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법제 화하고, 현행 예규에 규정되어 있던 ‘수 사심의 신청 기간 및 반려’ 등 독소 조 항을 삭제하여 사건관계인의 의사에 따 라 수사심의를 신청하고 권리를 보호받 을 수 있는 길을 넓혔다.

또한 수사심의 신청은 수사 개시된 날부터 가능하고, 종결 후에는 결과 통 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할 수 있 도록 하되, 90일이 경과했다라도 △새 로운 증거·사실이 발견된 경우, △증거 의 허위·위조·변조 정황이 인정되는 경 우에는 추가 신청이 가능하도록 규정했 다.

/서울=김영목기자

전북농기원 “군산·고창 벼멸구 발생 확인”

농진청·농업기술센터 합동 예찰
고온 지속 개체수 급증 우려

전북자치도농업기술원(최준열 원장) 은 벼 주요 병해충 예찰 결과 벼멸구 발 생이 확인돼 철저한 예찰과 방제로 피 해를 최소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농촌진흥청, 도 농업기술원, 시군 농

업기술센터는 벼멸구, 깨씨무늬병 등 벼 주요 병해충의 피해를 막기 위해 7 월부터 합동 예찰을 실시해 왔으며 지 난 5일 주요 발생지역 예찰 결과 군산, 고창에서 벼멸구 성충의 발생을 확인 했다.

벼멸구는 국내에서 겨울을 나지 못 하 고 매년 6~7월경 중국 남부 지역에서 기류를 타고 날아오는 외래 해충으로

벼 아랫부분에 집중 서식하며 벼대를 흡즙하여 피해를 준다. 벼멸구 피해는 비례량에 의해 크게 좌우되나 밀도가 높아지면 8월 하순부터 벼가 고사되는 피해가 나타나고 일찍 고사할수록 수량 감소가 심하다.

지난 2024년 전북 도내 중산간부(임 실, 진안 등)를 중심으로 8월 말부터 벼 멸구에 의한 집중고사 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고온이 지속됨에 따라 벼멸구 의 생활사(알·성충)가 단축돼 개체수가

급격히 증가한 것이 원인으로 추정됐으 며 올해 역시 8~9월 기온이 평년보다 높 을 것이라는 기상 예보가 나와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농업환경과 최소라 과장은 “벼멸구는 벼대 하부에 서식하므로 농약이 벼대 밑부분까지 문도록 충분히 살포하는 것 이 중요하다”라며 “제공되는 병해충 발 생 정보를 활용해 적기 방제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은지 기자

여름철 필수 교통안전 수칙



졸음운전 주의



차량화재 주의



밤길운전 주의



타이어 펑크주의

농식품부, 폭염·가뭄 국민 피해예방 ‘총력’

관계기관 가용 인력 총동원 생산목적에 맞는 가축 사육 지원

농림축산식품부는 폭염·가뭄 국민 피해예방에 산림청·농진청·농관원·지방정부 및 농협과 농업인단체 등 관련 기관·단체가 총력 대응한다고 지난 7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농촌지역 논·밭과 비닐하우스에서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361명(사망 5), 가축재해 보험에는 폭염으로 가축 688천여 마리가 폐사됐다.

이에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지난 6월 19일, 7월 2일, 7월 29일에 이어 4번째 현장 행보로 무더위 쉼터 등을 방문해 지역 농업인과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온열질환 예방대책을 점검했다.

송미령 장관은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외국인노동자에게 인권 침해와 폭염 피해가 없도록 특히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하며 외국인노동자들에게는 물 자주 마시기, 그늘

에서 휴식하기 등 온열질환 안전수칙을 반드시 지키도록 안내했다.

이와 함께 농업재해대책상황실을 중심으로 24시간 비상운영체계를 유지해 농업인과 외국인노동자 및 농축산물에 대한 피해상황을 일일 관리하고 폭염특보 발효 시 상황회의 개최, 재난문자 발송 및 폭염 대처 행동요령 전파 등 총괄 대응할 계획이다.

농식품부와 법무부·노동부·지방정부 협업을 통해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폭염 대응 집중관리기간(8월 초~중순)을 운영해 폭염 대응요령 숙지 여부, 예방용품 비치 여부 등을 점검한다.

농협중앙회는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 농협 142개소에 쿨링조끼 3만개를 공급하는 등 온열질환 예방 용품을 공급하고, 1108개 지역 농축협을 대상으로 무더위 쉼터를 포함한 온열질환 예방 사업 추진상황 등을 점검하고 현장요구나 미흡사항이 있을 경우 냉방용품 등 추가적인 지원을 통해 폭염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특히 외국인노동자 안전을 위해 농업인단체를 중심으로 충분한 휴식이 필요함을 강조하는 캠페인을 추진하고 SNS를 통한 “우리 농장은 폭염 위험시간입니다” 서약 및 인증샷 릴레이를 진행할



농림축산식품부는 폭염·가뭄 국민 피해예방에 산림청·농진청·농관원·지방정부 및 농협과 농업인단체 등 관련 기관단체가 총력 대응한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사진=농식품부>

계획이다.

폭염 장기화 등에 따른 농축산물에 대한 피해가 우려되므로 냉방장비 등을 선제적으로 지원해 농작물 작황 및 가축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한다.

농작물에 대해서는 농식품부, 농진청, KREI 등 합동으로 생육관리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기상상황에 따른 생육상황을 점검하고, 작황이 부진한 품목은 영양제 살포와 병해충 방제 지원, 물

부족 지역에는 살수차·물탱크 등을 활용한 긴급 급수를 지원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관계기관 협력을 통해 농촌지역 애환 강화, 점검확대 및 캠페인 활동 등 적극적인 현장 조치를 강화해 온열질환 및 농축산물 피해를 최소화하고, 선제적인 가뭄 대책 추진을 통해 농업분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영태 기자

한국전기안전공사 ‘폭염 대책 회의’ 개최

근로자 안전 최우선 폭염 대응 예산 1억2천여만원 투입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남화영)는 폭염중대경보 확대에 따라 지난 7일 폭염 대책 비상대책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사가 그동안 추진한 폭염 대책을 공유하고, 온열질환자 발생을 막기 위한 추가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사진=한국전기안전공사>

특히 공사는 세 차례에 걸쳐 긴급 투입한 온열질환 예방 예산 1억2839만원의 집행 현황을 확인했다.

공사는 지난 6월부터 해당 예산을 할

용해 현장 직원들에게 생수와 이온음료 등 공용 물품과 손 선풍기, 냉풍 조끼 등 개인용 냉방 용품 11종을 지원하고 있다.

또 기저질환자와 육체적 작업 강도가 높은 근로자 등 온열질환 민감군을 분류해 관리하고, 작업 전후로 온열질환 예방 점검표 작성 여부를 확인하는 등 현장 대응 강화를 당부했다.

아울러 폭염중대경보 발령 예상 사업소는 유연근무제를 적극 활용하도록 권장하고 모든 사업소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응급상황 발

생에 대비할 것을 주문했다.

지난달부터 현장을 직접 찾아 안전관리 특별 점검을 했던 전기안전공사 임원진들은 폭염 장기화에 따라 폭염 취약지역 사업소를 다시 찾고 대책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한국전기안전공사 남화영 사장은 “현장 직원들이 폭염 속에서도 국민의 전기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직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폭염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정소민 기자

전북중기청, 무주반딧불시장 안전점검

태풍 대비 태세 철저 주요 시설물 등 점검

중소벤처기업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장상만, 이하 전북중기청)은 다가오는 태풍 등 자연재해에 대비해 무주반딧불시장을 방문해 태풍 대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철저한 대비 태세를 강구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태풍으로 인한 강풍과 집중호우로부터 상인들의 재산을 보호하고, 이용객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실시했다.

이날 현장을 찾은 전북중기청과 건축·시설분야 전문가는 상인회와 함께 시장 내 주요 시설물을 세심하게 점검했다.

장상만 전북중기청장은 “전통시장은 시설이 많이 노후화된 공간인 만큼



중소벤처기업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자연재해에 대비해 무주반딧불시장을 방문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대비 태세를 강구했다고 밝혔다. <사진=전북중기청>

태풍에 대비해 철저한 사전 준비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철저한 점검을 통해

태풍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시장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소민 기자



전평신협-따숨지역아동센터 ‘2026년 어부바멘토링’ 성료

전평신협은 따숨지역아동센터와 진행한 ‘2026년 신협 어부바멘토링’ 프로그램이 7회기를 끝으로 마쳤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신협 어부바멘토링은 전국의 신협과 인근 아동복지시설의 결연을 통해 신협 임직원이 취약계층 아동의 멘토가 돼 건전한 성장을 돕는 멘토링 프로그램으로 보건복지부, 신협사회공헌재단,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지역신협, 아동복지시설이 10년째 공동 추진하고 있는 사회공헌활동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오전 7시부터 10시간 동안 전평신협 멘토 2명과 따숨지역아동센터 아동 31명, 인술교사 12명이 참석해 성남잡월드를 탐방했다.

전평신협과 따숨지역아동센터는 2024년부터 3년간 신협 어부바멘토링 프로그램을 협약해 진행 중으로 ▷보이스피싱 예방교육 ▷신용의 의미 ▷신용관리방법 등 아동들의 눈높이에 맞춘 금융교육과 ▷U&I 학습활동유형 검사를 통해 본인이 가진 기질을 유형별로 살펴보고 미래직업에 대해 고민해보는 진로교육을 진행했다.

채한목 이사장은 “신협 임직원이 아동들의 멘토가 돼 직접 전달하는 모습이 정말 보람차고, 신협과 함께 성장하는 아동들의 모습을 꾸준히 볼 수 있다는 게 참 감사하다”고 말했다.

/정소민 기자

“휴가철 축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업체 적발”

전북농관원, 닭고기 돼지고기 등 11개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지원장 한종현, 이하 전북농관원)은 지난달 15일부터 7월 31일까지(17일간) 축산물 원산지 표시에 대한 집중 단속에서 위반업체(11개소)를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축산물 수입·가공·판매업체, 피서·관광지 주변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혼동·위장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행위 등을 집중 점검했다. 주요 위반 품목은 닭고기(3개소),

돼지고기(2), 쇠고기(1), 오리고기(1), 기타(4) 등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 거짓 표시한 6개소는 형사 입건했다.

미표시한 5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155만원이 부과됐다.

전북농관원 한종현 지원장은 “소비자들께서도 농식품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원산지 표시 위반이 의심될 경우 전화 또는 농관원 누리집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영태 기자



정읍 칠보농협은 지난 4일 부터 7일 까지 나흘간 우석대학교 한의학과 봉사동아리 ‘광야’와 ‘농촌희망가꾸기’ 한방의료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사진=정읍 칠보농협>

정읍 칠보농협, 한방의료 봉사 전개

우석대 한의학과 학생들 동참

정읍 칠보농협(조합장 권순준)은 지난 4일 부터 7일 까지 나흘간 우석대학교 한의학과 봉사동아리 “광야”와 “농촌희망가꾸기” 한방의료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봉사활동은 평소 의료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농업인과 지역주민들에게 양질의 한방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한 농촌을 조성하기 위해 우석대 한의학과(지도교수 1명, 한의사 1명, 의료동아리 “광야” 학생 23명)와 준비했으며 △한방진료 △건강상담 △침치료, 부항 △한방 처방 등을 진행하며 칠보·산외·용동·산내 4개면 400여명의 조합원이 방문해 큰 호응을 받았다.

/정읍=김정인 기자



<사진=전북은행>

전북은행, 하반기 경영전략 모색

성장전략 및 실행방안 논의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 JB금융그룹 아움캠퍼스에서 박춘원 은행장, 임원 및 영업점장, 본부부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하반기 경영전략회의를 개최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회의는 상반기 경영성과를 점검하고 하반기 경영목표와 중점 추진과제를 공유하는 한편, 급변하는 금융환경 속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전략과 실행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춘원 은행장은 “불확실성이 일상이 된 지금은 위기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에 가장 빠르게 대응하는 조직만이 성장할 수 있다”며, 디지털 AI 기반 업무 혁신과 효율화를 지속 추진

해 미래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모든 변화의 출발점은 고객이며, 전북은행은 지역 대표 금융기관으로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을 흔들림 없이 이어가는 동시에 철저한 건전성 관리를 통해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금융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고객 중심의 사고와 실행력을 바탕으로 임직원 모두가 하나의 목표를 향해 협업하는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가자”며 “기본과 원칙을 지키면서도 변화에는 누구보다 민첩한 전북은행을 함께 만들어가자”고 독려했다.

/정소민 기자

전북테크노파크, 고창군 외국인 ‘정착 지원’

안정적인 지역 정주

(재)전북테크노파크는 지난 7일 고창군 해들벽영농조합법인에서 고창군 소재 기업에 재직 중인 외국인 근로자 및 기업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외국인 정착 지원 교육’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교육은 ‘2026년 시군구연고산업육성사업(고창)’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고창군 연고 산업인 식음료업 외국인 근로자들의 법적 준수율을 높이고 안정

적인 지역 정주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행사는 출입국 및 이민 법률 전문가와 유관기관 국제협력 전문가 강사를 섭외해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맞춤형 강의를 진행했다.

교육 1부에서는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신보증·통장 대여 금지 안내, 외국인등록 및 체류지 변경 신고 등 출입국 관리법상 필수 준수사항과 음주·무면허 운전 예방 등 한국 생활에 필수적인 생활법령이 다뤄졌다.

이후 2부 교육에서는 고용허가제(EPS) 및 하이코리아 시스템 활용법과 함께, 외국인 근로자들이 장기 근무를 위해 가장 높은 관심을 보이는 ‘숙련기능인력(7-4) 비자 전환제도’와 한시적 한국어 점수 유예 특례 등을 상세히 안내했다.

전북테크노파크 디자인센터 유종길센터장은 “이번 교육이 고창군 내 외국인 근로자들의 기초 법의식을 높이고 안정적인 현장 적응을 돕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소민 기자

전북대 ‘세계 TOP100 AI 대학원’ 도전

AI+X 석·박사 150명
양성... 최단 5.5년
‘패스트트랙’ 도입 및
산학연 협력 강화

전북대학교가 지역 성장엔진을 이끌 석·박사급 인공지능(AI) 전문인력 양성에 본격 나선다. 7개 융합학과, 정원 150명 규모의 연구중심 교육 체계를 통해 AI와 미래산업을 접목한 ‘AI+X’ 고급인

재를 육성하고, 세계 TOP100 수준의 AI 특화대학원으로 도약하겠다는 구상이다.

전북대 대학원은 AI융합대학원을 중심으로 교육과 연구 기반을 대폭 확충한다. 퍼지컬 AI, 로봇, 방위산업, 바이오·헬스, 스마트농업, 수소에너지, 인문사회 등 전북의 핵심 전략산업에 AI를 결합할 수 있는 연구형 인재를 길러내는 것이 목표다.

운영되는 7개 학과는 △피지컬-AI융합공학과 △로봇파운드리학과 △첨단

AI방위산업융합학과 △의생명융합학과 △스마트농업AI융합학과 △그린수소·연료전지공학과 △인문사회AI융합학과 등이다.

이들 학과는 전북특별자치도와 현대자동차, 농촌진흥청 등 지역 산업계 및 연구기관과 협력해 교육과정 설계와 공동연구를 진행한다.

학생들은 프로젝트 기반 AI+X PBL(Project-Based Learning) 교육을 등을 거쳐 지역 기업과 연구기관에서 활약할 정주형 인재로 성장하게 된다.

특히 정부의 AI 인재 양성 기조에 맞춰 학사부터 박사까지 최단 5.5년 만에 마칠 수 있는 ‘AI+X 패스트트랙’이 도입된다.

학부 3년과 석·박사 통합과정 2.5년을 연계해 연구역량을 갖춘 인재를 조기에 배출한다는 계획이다.

양오봉 총장은 “지자체와 연구기관 등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 성장엔진을 이끌 실무형 AI 고급인재를 집중 양성하겠다”고 밝혔다.

/최성민 기자



<사진=전북교육청>

전북교육청 ‘교육혁신선도지역’ 공모 참여

지자체·교육청 원팀 구성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교육부의 ‘교육혁신선도지역’ 공모에 도내 14개 시군 전체가 참여한다고 7일 밝혔다.

기존 교육발전특구를 개편해 올해 새롭게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교육청과 지자체, 지역사회가 협력해 지역 여건에 맞는 교육혁신 모델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선정 지역에는 연 20억 원씩 최대 5년간 특별교부금이 지원된다.

전북교육청은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천호성 교육감의 10대 핵심과제로 이를 추진해왔다.

지난달 추진단을 구성한 데 이어, 시군별로 교육청과 시장·군수 등이 참여하는 ‘지역교육혁신협의체’를 꾸리고 있다.

전북교육청은 기획 단계부터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 컨설팅을 거쳐 내달 30일 교육부에 최종 운영기획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선정 결과는 10월 발표된다.

천호성 교육감은 “나고 자란 곳에서 안정적으로 학업을 마치고 머물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이번 공모의 목표”라며 “14개 시군이 모두 참여한 만큼 전북형 교육혁신 모델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성민 기자

‘고창읍성 한옥복합문화공간’ 본격 운영

공연부터 감성숙소까지
관광 중심 ‘도약’

‘2천만 관광도시 달성’을 목표로 한 전북 고창군이 고창읍성 한옥복합문화공간을 개관하고 군민과 관광객을 맞이한다. 특히 문화공간 개관으로 고창읍성(모양성) 일원은 공연관람, 문화예술체험, 전시·판매, 감성숙소까지 완성되며 고창관광의 중심으로 도약한다.

지난 7일 고창군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모양갤러리에서 ‘고창읍성 한옥복합문화공간 개관식’을 열었다.

한옥복합문화공간은 고창읍성의 역사와 문화자원을 기반으로 조성된 복합문화공간으로, 기증작품 전시관인 ‘모양갤러리’와 고창군 공식 캐릭터 굿즈샵인 ‘모로하우스’로 구성됐다.

‘모양갤러리’는 고창군립미술관이 소장한 기증작품을 군민과 관광객에게 선보이기 위해 마련됐다. 첫 전시는 ‘기증, 그 위대한 유산’을 주제로 26점의 작품이 전시된다. 특히 고창 출신 서양화의 거장

진환 화백의 대표작 ‘우기8’을 원작에 충실하게 재현한 작품도 함께 전시된다. 원작은 오는 2027년 개관 예정인 고창군립미술관에서 만나볼 수 있을 예정이다.

‘모로하우스’는 고창군 캐릭터 ‘고창이와 친구들’ 굿즈를 선보이는 굿즈샵이다. 인형, 키링, 마그넷, 배지 등 남녀노소 좋아하는 다양한 굿즈로 채워져 있으며, 야외 쉼터에는 방문객들이 간단한 음료를 즐기며 고창읍성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도록 테이블과 의자도 마련했다. 한옥복합문화공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7

시까지 운영되며 매주 월요일은 휴관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고창읍성 한옥복합문화공간은 관광객들이 자연스럽게 방문할 수 있다는 큰 입지적 장점을 갖추고 있어 새로운 문화관광 거점공간으로서의 역할이 매우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기증작품을 순환 전시하고, 다양한 굿즈를 개발해 더욱더 알찬 한옥복합문화공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익산시 ‘예술아, 놀자’로 여름방학 추억 선사

익산시립예술단이 어린이와 가족 관객들의 여름방학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었다.

지난 7일 익산시에 따르면 지난 5일부터 이날까지 소리문화예술회관 중 공연장에서 열린 익산시립예술단의 특별공연 ‘예술아, 놀자’가 많은 시민의 참여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공연은 방학을 맞은 어린이와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마련된 참여형 공연으로, 사흘 동안 많은 시민이 공연장을 찾아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즐기며 여름방학의 특별한 추억을 만들었다.

무대에는 익산시립합창단·무용단·풍물단이 함께 참여해 합창과 창작무용, 전통연희를 선보였다. 특히 관객이 노래를 따라 부르고 공연에 직접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 꾸며져 어린이들의 적극적인 호응을 이끌어냈으며, 공연장에는 공연 내내 웃음과 박수가 이어졌다.

시는 앞으로도 다양한 공연과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사진=익산시>

시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 관람객은 “아이와 공연이 끝난 뒤에 노래를 흥얼거리며 즐거워했다”며 “온 가족이 함께 웃고 즐길 수 있는 특별한 여름방학 선물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익산시 관계자는 “공연장을 찾아주시는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다”며 “앞으로 더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문화예술을 더욱 가까이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전북현대, 제주 상대로 선두 추격 시동

이동준·콤파뇨 출격

전북현대모터스FC가 안방에서 분위기 반전과 승점 3점 상성에 나섰다.

전북현대는 지난 8일 오후 8시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하나는행 K리그 1 2026’ 22라운드 제주SK와 홈경기를 치렀다.

지난 라운드 FC서울전에서 무승부를 기록한 전북은 이번 경기에서 한층 강화된 공격 자원을 앞세워 승리를 노렸다.

부상을 털어낸 이동준이 측면에 힘을 실어주며, 지난해 십자인대 부상으로 긴 재활을 거친 콤파뇨가 마침내 출격 대기기를 마쳤다.

여기에 ‘7월 K리그 이달의 골’ 후보에 오른 고교생 유망주 김예건의 활약도 기대를 모았다.

상대 팀 제주는 최근 뻣뻣한 일정으로 체력적 부담을 안고 전주성을 찾았다. 전북은 초반 강한 압박을 통해 주도권을 잡았다.

한편, 이어지는 폭염에 한국프로축구



<사진=전북현대>

연맹이 선수와 관중 보호를 위해 킥오프 시간을 오후 8시로 30분 연기함에 따라, 구단은 대중교통 이용객들의 사전 시간표 확인을 당부했다.

아울러 N석 응원석을 중심으로 ‘워터게논’을 전격 가동해 시원한 관전 환경을 제공했다.

/최성민 기자



<사진=군산대학교>

군산대 김민서 학생 ‘앵커 리더’ 선정

국립군산대학교 앵커(RISE)사업단은 식품영양학과 4학년 김민서 학생이 ‘2026년 상반기 앵커 리더(ANCHOR-Leader)’ 학생 분야에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앵커 리더’는 지역 성장 인재 양성 체계인 앵커 사업을 통해 우수한 성과를 거둔 참여자를 포상하는 제도로, 올해 상반기에는 교원, 직원, 학생, 기업 임직원 등 5개 분야에서 총 10명이 선정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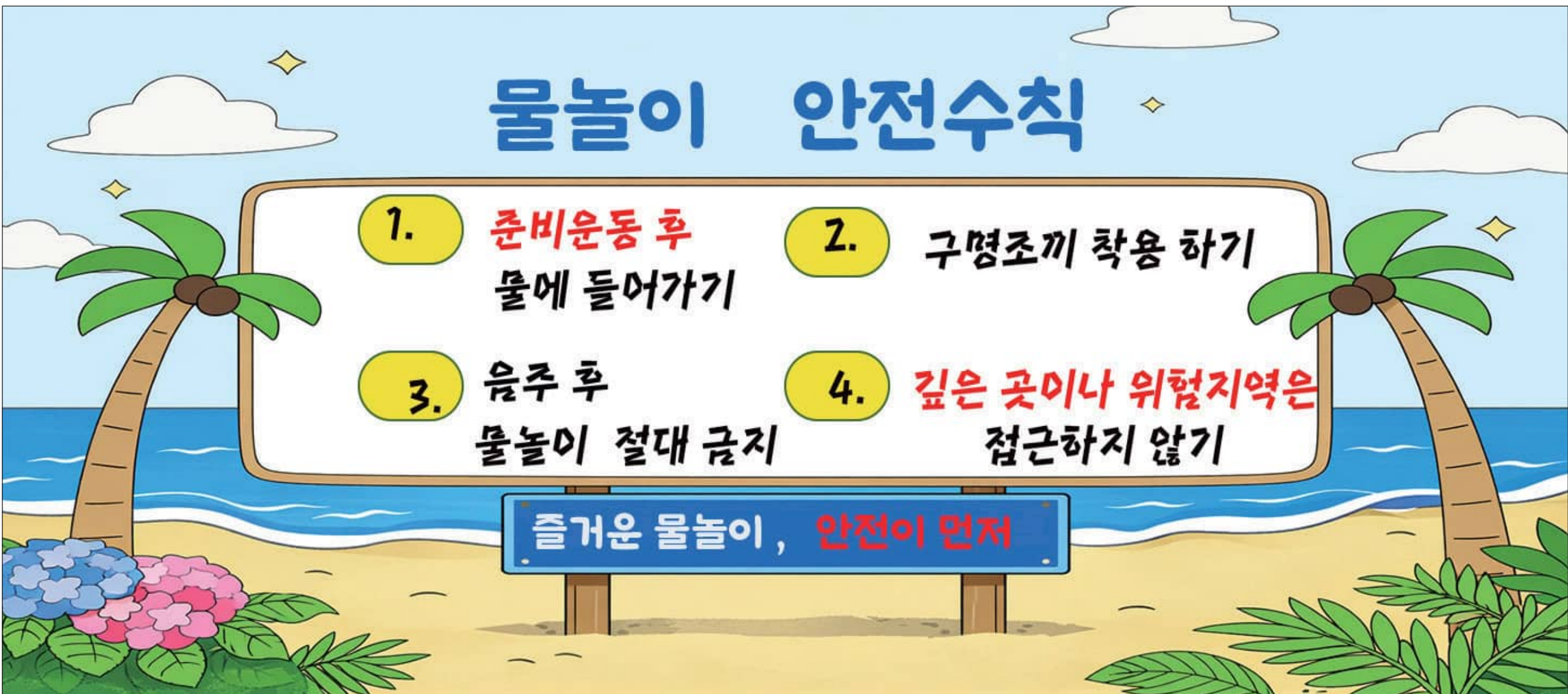
김민서 학생은 해양수산 인재양성 프로그램에 참여해 학술동아리, 캡스톤디자인

등을 이수하며 전공 기반 역량을 키웠다.

특히 지역 해산물을 활용한 먹물 쿠키와 감오징어 고로케 등을 기획해 심포지엄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으며, HACCP 교육과 후속 제품 개발 등 실무 경험을 쌓았다.

사업단은 이번 성과를 후배 학생들과 공유하고, 지역 수산자원을 활용한 학생 참여형 창업 연계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최성민 기자



익산시, 고립가구 발굴·지원 역량강화 교육

익산시가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위험에 놓인 위기가구를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하기 위해 민관 협력 기반의 복지안전망 강화에 나섰다.

익산시는 지난 7일 국민생활관 소극장에서 ‘고립가구 발굴과 지원을 위한 민관협력 활성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1인 가구 증가와 가족·이웃 간 관계 단절,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위험이 커지는 상황에서, 위기가구를 조기에 발견하고 필요한 복지 서비스로 신속하게 연계할 수 있는 지역사회의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복지소통꿈연구소 김현 대표가 맡아 실제 현장 사례를 중심으로 고립가구의 특성과 복지 위기 신호를 살피는 방법을 소개했다. 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복지기관, 돌봄 수행기관 간 협력체계를 활용한 현장 대응 방안도 함께 공유했다.

최영숙 복지정책과장은 “앞으로도 민관이 함께 위기가구를 신속히 발굴하고 지원하는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정읍시, 단풍미인쇼핑몰 입점업체 판로 확대 나선다

정읍시가 단풍미인쇼핑몰 124개 입점업체의 온라인 판매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실전 홍보 교육에 나선다.

시는 오늘부터 11일까지 제2청사 정보화 교육장에서 단풍미인쇼핑몰 입점업체 대표와 담당자를 대상으로 ‘AI 활용 마케팅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에서는 챗지피티(ChatGPT) 등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농산물 소개 글과 홍보 문구를 작성하는 방법을 비롯해 상품 사진 보정, 홍보 이미지와 영상 제작법 등을 다룬다. 블로그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물 작성법, 상품 홍보에 효과적인 해시태그) 선정 방법도 교육한다.

정읍시가 직영하는 단풍미인쇼핑몰은 지역 농특산물의 온라인 판매 창구 역할과 함께 온라인 판매 경험에 부족한 농가와 업체의 시장 진입을 돕고 있다. 이번 교육 역시 입점업체들이 변화하는 온라인 판매 환경에 대응하고 스스로 상품을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시는 입점업체들이 교육 내용을 실제 상품 소개와 온라인 홍보에 활용하면 소비자와의 접점을 넓히고 실질적인 매출 증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읍=김정인 기자

군산시 ‘전북시민대학’ 교육생 선착순 모집

군산시가 지역 대학들과 협력해 시민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인 ‘2026 전북시민대학 군산새만금캠퍼스’ 하반기 교육과정 교육생을 모집한다.

교육과정 신청은 오늘부터 전북시민대학 누리집을 통해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교육은 오는 14일부터 12월 2일까지 약 4개월간 군산지역 대학 캠퍼스와 군산시평생학습관에서 운영된다.

시는 각 대학의 특성과 지역 수요를 반영해 상반기 호원대학교 등에서 ‘스마트폰을 활용한 Youtube 만들기’ 등 5개 전북시민대학 교육과정을 성공리에 운영했다. 하반기에는 창업 특화과정 및 실생활에 유용한 교양과정 등 6개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세부 과정으로는 △군산대학교에서 ‘한국리더십센터 교육수료 자격과정’, ‘식탁 위의 역사’ △군장대학교에서 ‘전원염색과 생활패션 소품 제작’, ‘전북지역특산물을 활용한 고령 친화식품 리빙랩’ △군산간호대학교에서 ‘나를 살리는 생존 건강’ △월명평생학습센터에서 ‘세계여행과 지구촌 시민’이 각각 진행된다.

배숙진 군산시 복지교육국장은 “전북시민대학을 통해 지역과 대학이 함께 성장하는 배움의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정읍시, 미래 동물의약품 특구 본격화

특구 기업 2곳 투자협약… 연구개발 사업화 지원 나선다

정읍시가 차세대 동물의약품 규제자유특구 유특구를 발판 삼아 관련 기업 투자와 연구개발 기반을 확대하며 미래 동물의약품 산업 거점 구축에 속도를 낸다.

시는 지난 6일 전북특별자치도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전북 차세대 동물의약품 규제자유특구 참여기업 투자협약식’에서 특구 참여기업인 ㈜케어사이드, ㈜닥터아이앤비와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전북특별자치도와 정읍시, 익산시를 비롯해 규제자유특구 참여기업 11개사가 참석했다.

참석 기관과 기업들은 특구 지정을 계기로 기업 투자를 확대하고 실증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시는 이번 협약을 토대로 두 기업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연구개발과 사업화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행정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전북 차세대 동물의약품 규제자유특구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정읍시와 익산시 일원에서 추진된다.



정읍시는 지난 6일 전북도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전북 차세대 동물의약품 규제자유특구 참여기업 투자협약식’에서 참여기업 2곳과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정읍시>

주요 사업은 △동물용 첨단 생명공학 의약품과 신약의 안전성·유효성 심사 자료 실증 △자가백신 대상 품목 확대 실증 등이다.

이를 통해 기존 규제로 어려움을 겪었던 신기술의 검증 기회를 넓혀 기업의 연구개발과 사업화를 앞당기고 국내 동물의약품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그동안 ‘반려동물 의약품 개발 및 실용화 플랫폼 구축사업’, ‘지역혁신 메가프로젝트’ 등을 추진하며 기업 지원과 연구개발 기반을 꾸준히 확충해 왔다.

국가독성과학연구소 등 관련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동물의약품 안전성 평가와 실증 기반도 강화하는 등 산업 생태계 조성에 공을 들여왔다.

이학수 시장은 “전북 차세대 동물의약품 규제자유특구 지정은 정읍이 미래 동물의약품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도약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케어사이드와 닥터아이앤비를 비롯한 참여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하도록 적극 지원하고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대한민국 동물의약품 산업 발전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군산시, 신규 일자리사업 정책화 논의

일자리정책위원회 신규사업 9건 검토

군산시는 지난 7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부시장 주재로 ‘2026년 제2회 일자리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신규 일자리사업의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실무협의회를 통해 발굴된 9개 신규 일자리사업과 소관 부서별 검토 결과를 공유하고, 사업의 필요성과 실현 가능성, 추진 시 보완 사항 및 우선순위 등에 대한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주요 제안사업은 △군산 미식관광 밀키트 제품개발 및 판로확대 지원사업 △소상공인 금융 컨설팅 지원사업 △

청년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청년근로자 휴가비 지원사업 △청년근로자 여가시설 활용 지원사업 △군산 산업단지 신규채용인력 교통신 지원사업 △2026 군산 채용박람회 개최사업 △HJ중공업 선박건조 인력양성 및 수급사업 △산업단지 외 국인근로자 글로벌 친화일터 조성사업 등이다.

위원들은 청년근로자의 장기근속과 지역 정착을 위한 지원방안, 산업단지 근로자의 출퇴근 여건 개선, 조선업 인력 수요에 대응한 맞춤형 인력양성, 외 국인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 등 군산의 주요 고용 현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신규사업이 실질적인 고용 창출과 근로자의 장기근속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존 사업과의 중복 여부, 지원 대상과 방식, 관계기관 간 역할 분담, 사업의 지속 가능성 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군산시는 이날 논의된 의견을 바탕으로 신규사업의 타당성과 추진 가능성, 예산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추진 필요성이 높은 사업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마련해 향후 예산 편성에 반영할 계획이다.

김영민 부시장은 “군산은 조선산업의 제도와약과 함께 미래차, 이차전지, 에너지산업 등 새로운 성장 기회를 맞고 있다”며 “산업의 변화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일자리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익산시, 시민 중심 복지계획 마련 ‘박차’

지역 특성과 복지 욕구 반영한 4년 계획 수립

익산시가 시민 삶의 질을 높이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중장기 복지계획 수립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익산시는 지난 7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제6기(2027~2030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지역의 복지 여건과 주민 복지 수요를 반영해 4년간 사회보장정책의 방향과 핵심 과제를 담은 법정계획이다. 시는 이번 계획을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복지정책을 마련하고, 변화하는 복지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보고회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과 관계 부서 공무원, 시민, 용역 수

행기관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해 계획 수립 추진 현황과 분야별 추진 전략을 공유하고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시는 용역에 앞서 실시한 지역사회보장조사 결과와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전담 조직의 검토 내용을 바탕으로 전략별 대표 과업과 사업을 구체화해 왔다.

이날 제시된 의견은 관련 부서의 검토를 거쳐 최종 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익산=최준호 기자

정읍시, 하반기 전기차 270대 더 쏜다

상반기 290대 조기 소진 추정 편성해 추가 보급

정읍시가 상반기 전기자동차 보조금의 조기 소진에 따라 추가경정예산 35억원을 편성해 하반기 270대를 추가 보급한다.

시는 고유가로 전기자동차 구매 수요가 빠르게 늘면서 상반기 보조금 예산이 조기에 소진됨에 따라 하반기 민간 보급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하반기 보급 물량은 전기승용차 200대와 전기화물차 67대, 전기승합차 3

대다. 앞서 시는 상반기에 전기승용차 199대와 전기화물차 91대 등 모두 290대의 구매를 지원했다.

차종별 최대 지원 금액은 전기승용차 1210만원, 전기화물차 1750만원, 전기승합차 1억4000만원이다. 실제 보조금은 차량의 종류와 성능, 규모 등에 따라 달라진다.

전기승용차와 전기화물차는 오는 18일부터 21일까지 신청받는다.

전기승합차는 내달 1일부터 별도로 접수한다.

구매 희망자는 전기자동차 판매 대리점을 방문해 차량 구매계약을 체결한

뒤 대리점을 통해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사업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정읍시 누리집 공고·고시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이 몰려 예산이 모두 소진되면 접수가 예정일보다 일찍 마감될 수 있다.

이학수 시장은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는 시민들의 유희부 부담을 줄이고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구매를 계획하고 있는 시민과 기업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군산시, 9월까지 경로당 냉방비 지원

늦더위 장기화 대응

군산시(시장 김재준)가 올해 처음으로 9월 경로당 냉방비를 지원한다. 국·도비 지원이 없는 9월분을 시 자체 재원으로 마련해 관내 경로당 543개소에 5,430만 원을 투입한다.

경로당 냉방비는 그동안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7월과 8월에만 월 16만 5천 원씩 지원돼 왔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늦더위가 9월까지 이어지면서, 지원이 종료된 이후에도 냉방 수요가 계속되는 상황이 반복됐다. 이에 따라 9월 냉방비는 경로당에서 자체적으로 부담해 왔다.

시는 이러한 실정을 고려해, 각 경로당에 9월 냉방비 1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다.

김재준 군산시장은 “폭염은 이제 계절이 아니라 재난”이라며 “현장의 수요는 9월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지원은 이를 반영하지 못했다”며 “경로당은 어르신들이 더위를 피하고 건강을 돌보는 생활공간인 만큼 필요한 지원은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시는 앞으로도 기존 지원체계에 머무르지 않고 현장 수요와 기후변화 변화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군산=지송길 기자



<사진=익산시>

익산시, K-문화도시 위한 민간 협력 강화

익산시가 지역 역사·문화 자원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지속 가능한 관광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민간 단체와 손을 맞잡았다.

익산시는 지난 7일 익산시청 소회의실에서 문화나눔뿌리와 ‘익산시 지역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허대성 문화나눔뿌리 이사장과 관계자들이 참석해 익산의 문화관광 발전을 위한 다각적인 협력 의지를 다졌다.

이번 협약은 익산이 보유한 유구한 역사 자원과 다채로운 관광 명소를 효과적으로 알리고, 민간이 가진 광범위

한 네트워크를 활용해 외지 관광객 유치를 극대화하고자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익산 문화·관광자원 홍보 △지역 축제 및 문화행사 협력 홍보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한 공동 사업 추진 등에 적극 힘을 모으기로 했다.

최정호 익산시장은 “익산은 백제의 유구한 역사부터 풍부한 문화예술 자원까지 고유의 매력이 넘쳐나는 도시”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명실상부한 K-문화도시로 도약하는 든든한 기반을 다져가겠다”고 강조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정읍시, 100명 머리 맞댄 ‘정책 원탁회의’

정읍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지난 5일 수성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시민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6 정읍지속가능발전 정책포럼 시민원탁회의’를 열고 정읍의 미래를 위한 정책과제를 모색했다.

이번 회의는 시민이 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지역 문제를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관점에서 진단하고 실행 가능한 정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이학수 시장과 이용환 협의회 상임대표, 이남희·김경란·한선미·김영현 시의원 등이 참석해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청년과 고령층, 다문화가족, 소상공인, 농업인, 사회단체·환경·교육 관계자 등 다양한 시민들은 10개 원탁으로 나뉘어 지역 현안과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지속가능발전 개념을 공유한 뒤 지역 문제 진단, 해결방안 제안, 우선과제 선정과 발표 순으로 토론을 진행

했다.

주요 의제는 △청년들이 머무르고 돌아오는 정읍 스나이 들어도 생활이 쉼기지 않는 정읍 △농촌이 지속돼야 정읍이 지속된다 △스쳐가는 관광에서 머무는 지역경제로 △기후위기에 안전하고 탄소를 줄이는 정읍 △자연과 시민이 함께 만드는 환경교육도시 정읍 등 6개 분야다.

참가자들은 일자리·주거·문화를 연계한 청년 정착, 의료·돌봄·교통을 아우르는 고령사회 안전망, 지속가능한 농촌, 체류형 관광, 탄소중립과 기후적응, 생물다양성 보전 등을 집중 논의했다. 이학수 시장은 “시민이 생활 현장에서 느끼는 문제와 정책 제안은 정읍시의 미래 방향을 설정하는 중요한 기준”이라며 “원탁회의에서 제시된 의견을 면밀하게 살펴 지역 여건에 맞는 정책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정인 기자

익산시, 안전점검의 날 민관 합동 캠페인

익산시가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과 생활 속 안전문화 확산에 나섰다.

익산시는 지난 7일 영등시민공원, 모현공원, 중앙체육공원, 유전생태습지공원 등 어린이 수영장 4곳에서 민관 합동 안전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익산시가 매월 운영하는 ‘안전점검의 날’과 연계해 마련됐다. 이날 익산시 공무원을 비롯해 자율방재단, 안전모니터봉사단, 안전보안 등 30여 명이 참여했다.

참여자들은 어린이 물놀이시설의 안전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시설 이용 시

민과 안전관리요원을 대상으로 물놀이 안전수칙을 안내했다. 특히 어린이 이용객이 많은 시설 특성을 고려해 미끄럼 위험과 시설물 이상 여부 등 안전 위험요소를 꼼꼼히 확인했으며, 안전 홍보 리플릿과 물티슈, 염염수 등을 배부하며 생활 속 안전문화 실천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용진 시민안전과장은 “안전은 작은 관심과 실천에서 시작된다”며 “앞으로도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익산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생활밀착 행정 강화 2(題)

완주군, ‘수의계약 총량제’ 개편 운영

완주군이 ‘수의계약 총량제’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적극 반영해 제도 개편안을 시행한다.

앞서 군은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5일까지 10일간 관내 업체와 관련 단체를 대상으로 의견 수렴을 위해 수의계약 총량제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설문조사에는 관내 64개 업체가 만족도 조사 및 개편 방향 등 12개 항목에 온라인 익명 설문 방식으로 참여했다. 설문 결과 74%의 참여업체가 수의계약 총량제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답했으며, 제도 합리성 항목에 대해서는 59%가 그렇다고 답변하는 등 지역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긍정적인 성적표를 받았다. 다만 수의계약 총량

제 합리성 항목에서 34%가 부정적으로 답변해 군은 더 많은 지역업체에 참여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또한 총량제 개선 항목에 대해서는 84% 이상 업체가 개편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기관별 차등 제한을 둔 총액(건수) 제한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설문조사 결과 및 부서 의견을 검토해 관내 공시한 업체당 분청 2억 원, 사업소 1억 원, 읍면 별 연 3회 제한을 두되 연간 수의계약 총액한도를 3억 원으로 시행한다.

완주군은 관내 업체를 최우선으로 반영하되, 특정 업체의 편중을 방지하기 위해 2022년 8월부터 수의계약 총량제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완주=김병곤기자

순창군, 취약계층 응급환자 이송비 지원 확대

순창군은 응급의료기관 접근이 어려운 지역에 거주하는 군민들이 신속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취약계층 응급환자 이송비 지원사업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응급환자가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구급차 이용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특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조항으로 2026년 8월 14일부터 구급차 이송처치료 기준이 인상됨에 따라, 군은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8월 14일 이후 구급차로 이송된 응급환자부터 이송비 지원 한도를 기존 최대 15만원에서 최대 20만원으로 상향한다.

지원 대상은 이송일 기준 순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소아·청소년(0~18세), 고령자(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응급의료 취약지역에서 타 지역 의료기관으로 구급차를 이용해 이송된 응급환자에 한해 지원한다.

지원 신청은 환자 본인,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할 수 있으며, 이송일로부터 1년 이내에 연간 5회까지 가능하다. 신청을 희망할 경우 순창군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원무팀(063-650-5321)에 문의한 후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응급환자가 비용 부담 없이 신속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이송비 지원을 확대했다”며 “앞으로도 군민의 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순창=박지현 기자

남원시, 탁구 꿈나무 하계합숙훈련 유치

남원실내체육관에서 18일까지

유망주·지도자 50명 참가

남원시체육회(회장 류흥성)는 2026년 전지훈련 유치 운영사업의 일환으로 8월 5일부터 18일까지 남원실내체육관에서 ‘2026 탁구 미래국가대표 꿈나무선수 하계합숙훈련’이 진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하계 합숙훈련은 대한민국 탁구의 미래를 이끌어갈 유망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과 우수선수 육성을 위해 마련됐으며, 전국에서 선발된 탁구 꿈나무 선수와 지도자 50여 명이 남원을 찾아 체계적인 훈련을 통해 기량 향상에 매진하고 있다.

선수단은 훈련 기간 동안 기초 체력 강화와 전반기술 훈련을 비롯해 전형별 취약점 보완, 실전 경기 중심의 전술훈련 등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소화하며 경기력 향상에 집중할 예정이다.

남원시체육회는 선수들이 훈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훈련시설 이용과 수송 지원 등 각종 편의를 지원해 훈련 기간 동안 불편함 없이 체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합숙훈련은 선수와 지도자들이 2주간 남원에 머물며 숙박시설과 음식점 등 지역 상권을 이용함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며, 전국 단위 우수 선수 합숙훈련 유치를 통해 남원시의 우수한 체육 인프라와 전지훈련 최적지로서의 경쟁력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류흥성 남원시체육회장은 “선수들이 좋은 환경에서 훈련하며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남원=정하복 기자

완주군, 모바일 헬스케어 건강관리 중간점검

참여자 150명 중간 건강측정

운동·식생활 개선 지속 지원

완주군이 오는 14일까지 2주 동안 모바일 헬스케어사업 참여자 150명을 대상으로 중간 건강측정을 실시한다.

이번 측정 대상은 건강위험군(50명)과 자가관리군(100명)이다. 건강위험군은 사전 검사에서 혈압, 혈당, 허리둘레, 중성지방, 에이지디엘(HDL) 콜레스테롤 등 건강위험요인을 3가지 이상 보유해 집중 관리가 필요한 참여자다.

자가관리군은 건강 상태가 상대적으로 양호해 스스로 건강 습관을 유지·개선하도록 지원하는 참여자다.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은 모바일 앱과 스마트 활동량계를 활용해 참여자의 신체활동과 식생활을 지속해서 확인하고, 간호사·영양사·운동전문가가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측정에서는 혈압·혈당 등 건



<사진=완주군>

강검사와 신체계측, 체성분 측정, 식생활 및 신체활동 실천 상태 등을 확인한다. 측정 결과는 사업 시작 전 사전검사 결과와 비교해 참여자의 건강지표 변화와 건강생활 실천 성과를 점검하는 데 활용된다.

중간측정 결과에 따라 건강위험군에게는 건강위험요인 개선을 위한 분야별 집중상담과 맞춤형 건강목표를 제공하고, 자가관리군에게는 현재의 건강상태를 유지하면서 만성질환을 예방할 수 있도록 규칙적인 운동과 균형 잡힌 식생활 실천을 지원할 예정이다.

/완주=김명곤기자

남원시, 지역아동센터 명랑운동회 성황

아동·가족 등 700여명 참여

고학년·저학년 맞춤형 진행

남원시는 지난 7일 남원 반다비 체육센터 다목적체육관에서 제13회 지역아동센터 명랑운동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남원시가 주최하고 남원지역아동센터협의회(회장 장신화)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아동과 가족, 종사자, 내빈 등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됐다. 행사는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1부 기념행사, 2부 명랑운동회 및 물놀이 프로그램 순으로 이어졌다.

특히 이번 행사는 전북교육청 남원교육지원청에서 게임 진행 및 물놀이 바운스 행사를 후원했다.

/남원=정하복 기자

완주군 청소년, 초록우산 지원으로 치과 치료

완주군청소년수련관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에 참여하고 있는 한 청소년이 초록우산 전북지역본부의 의료비 지원으로 치과 치료를 받는다.

해당 청소년은 치아 질환으로 치료가 시급했으나 경제적 부담으로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완주군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의 건강 상태와 가정 환경을 확인한 뒤 초록우산 전북지역본부에 의료비 지원을 요청했다.

초록우산 전북지역본부는 사례 심사를 거쳐 치아 크라운 치료에 필요

한 의료비를 지원했다. 이를 통해 해당 청소년은 안정적으로 치과 치료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현재 완주군청소년수련관은 방과후 아카데미를 통해 해당 청소년에게 다양한 활동과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수련관 측은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을 지속해서 지원할 방침이다.

박해란 아동친화과장은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에게 적절한 복지지원이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완주=김명곤기자

남원시, 폭염·가뭄 속 녹지 고사 예방 총력

가로화단·산책길 집중 급수

폭염 장기화 땀 관리 확대 대응

남원시가 연일 이어지는 폭염과 가뭄으로 도심 녹지가 고사 위기에 처하자 시가지 가로화단과 산책길을 중심으로 집중 급수작업을 실시하며 녹지 보호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 지속되는 폭염과 강수량 부족으로 토양이 메마르면서 시내 곳곳의 가로화단과 산책로 수목, 조화류가 수분 부족 현상을 겪고 있다. 이에 남원시 산

림녹지과는 시민들에게 쾌적한 녹지환경을 제공하고 식물의 고사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급수차량을 동원해 오전과 오후로 나눠 급수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급수 대상은 남원 시내 주요 도로변 가로화단의 철쭉과 홍가시나무, 치자나무를 비롯해 요천변 산책길 수국 군락지 등이다. 시민들에게 그늘과 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가로수와 화단의 녹지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관찰과 급수작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

히 요천변 수국은 집중 관리하고 있다.

산림녹지과는 식물의 수분 흡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기온이 비교적 낮은 오전과 오후 시간대를 활용해 급수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폭염이 장기화될 경우에는 급수 횟수를 탄력적으로 확대하는 등 기상 상황에 맞춰 대응할 계획이다.

남원시 산림녹지과 관계자는 “폭염이 이어지는 동안 도시 녹지 보호를 위한 현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남원=정하복 기자

완주군, 중장기 보건의료 청사진 마련 착수

4년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읍면 의료환경 실태 종합 분석

완주군이 군민 건강권을 확보하고 급변하는 의료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향후 4년간의 보건의료 청사진을 그리는 ‘제9기 중장기 지역보건의료계획(2027~2030년)’ 수립에 본격 착수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에 따라 4년마다 수립하는 법정 중장기 계획이다.

완주군은 지역 주민과 보건의료기관·시설을 대상으로 향후 4년간 적용

할 중장기 보건의료 기본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이번 계획 수립에 나섰다.

완주군은 착수일로부터 150일간 진행하는 용역을 통해 인구 구조 변화, 만성질환 증가, 고령화 등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보건의료 환경을 다각도로 진단한다.

특히 읍면별 의료 접근성 격차와 취약계층 현황, 보건 인프라의 공간적 분포 및 기능적 한계를 분석해 맞춤형 보건정책 전략을 도출할 계획이다.

단순한 통계 분석을 넘어 지역 주민 대상 설문조사와 전문가·유관기관 간 담화를 진행해 주민이 제창하는 보건

의료 요구도를 세심하게 파악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성과와 자원 투입 결과를 정밀히 분석해 잘된 점은 계승하고, 개선 과제는 이번 제9기 계획에 구체적으로 반영해 실행력을 극대화한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은 군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한 보건행정의 최상위 종합계획”이라며 “지역 특성을 신중히 반영해 완주군만의 특화된 중장기 보건의료 체계를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완주=김명곤기자

순창 실랜드 ‘웰에이징’ 연수 호응

화순교육지원청 교직원 참여

관광·치유 체험프로그램 운영

순창군 실랜드가 지난 6일과 7일 이틀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교육지원청 소속 교직원 80명을 대상으로 ‘웰-에이징(Well-Aging) in 순창’ 연수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

회차당 40명씩 총 2회에 걸쳐 열린 이번 연수는 일상 속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건강한 관계와 삶의 활력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실제로, 방향을 맞아 업무에 지친 학교 영양사 및 조리사들에게 심신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으며, 실랜드의 청정한 자연과 여유로운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을 구성해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연수 기간 동안 참가자들은 실랜드의 자연환경 속에서 다양한 치유 프로그램을 체험하며 몸과 마음의 활력을 되



<사진=순창군>

찾는 시간을 가졌다.

연수는 실랜드 시설 견학을 시작으로 몸의 긴장을 완화하고 심신의 안정을 돕는 힐링 아로마 요가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이어 연잎밥과 제철 식재료로 구성된 건강식을 즐기며 순창의 건강한 먹거리를 체험하고, 편백숲 산책을 통해 자연 속 힐링의 시간을 보냈다.

오후에는 나만의 반려식물을 만드는

‘원예테라피 체험’과 생활 속 건강관리를 위한 ‘근육·관절 물파스 만들기’ 등 프로그램이 이어졌다.

이번 연수는 치유와 휴식은 물론 지역 관광자원과 연계한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운영돼 순창군의 교류인구 확대와 생활인구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순창=박지현 기자

남원 아영면 폭염대응 현장행정 26개 마을 순회점검

남원시 아영면(면장 김봉례)은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대응하고 주민들의 안전한 여름나기를 지원하기 위해 이달 4일부터 10일까지 관내 26개 마을을 순회 방문한다.

김봉례 아영면장과 각 팀장은 구상마을을 시작으로 마을회관과 경로당, 무더위쉼터 등을 찾아 시설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어르신들의 안부를 살피는 등 폭염 대응 현장을 직접 확인한다.

또한 농촌공간 정비사업, 청년보급자리 조성사업 등 아영면 주요 시책을 설명하고, 폭염 대비 행동요령과 시민안전보훈 등 주민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안내한다. 아울러 주민들의 생활 불편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도 함께 마련한다.

김봉례 아영면장은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는 만큼 어르신과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주민 곁으로 직접 찾아가는 현장행정을 통해 안전한 여름나기와 주민 불편사항을 세심하게 살피겠다”라고 말했다.

/남원=정하복 기자

순창군민예술회관, 오는 22일 ‘사자전-설공찬전’ 무료 공연

순창군민예술회관 상주단체인 문화포럼 나니레가 오는 22일 오후 4시 순창군민예술회관에서 창작음악극 ‘사자전-설공찬전’을 무료로 선보인다.

문화포럼 나니레는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이 주관하는 2026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순창군민예술회관과 협력하며 지역 기반 창작공연과 주민 참여형 문화예술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작품 역시 사업의 일환으로 제작된 창작음악극으로, 순창의 역사와 문화를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해 무대에 올린다. 공연은 무료로 진행되며, 공연 관람을 희망하는 관람객은 포스터 매 QR코드를 통해 사전조사에 참여하면 된다.

‘사자전-설공찬전’은 순창을 배경으로 한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 소설 ‘설공찬전’을 소재로 한 작품이다. 귀신과 저승세계를 오가는 독특한 이야기 속에 당시 사회와 권력을 풍자한 원작의 의미를 살리면서, 전통을 약과 연기, 노래를 접목해 남녀노소 누구나 흥미롭게 즐길 수 있도록 구성했다.

이희정 문화포럼 나니레 대표는 “이번 공연을 통해 군민과 관람객들이 순창의 역사와 문화를 더욱 친숙하게 만나고, 우리 지역의 문화적 자긍심을 느끼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순창=박지현 기자



남원시 드림스타트 항공우주과학교실 진행

남원시 드림스타트는 지난 6일부터 7일까지 이틀간 학령기 아동 20명을 대상으로 미래 항공우주 분야의 꿈을 키우고 색다른 과학 체험을 제공하는 ‘항공우주과학교실’을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여름방학 기간 동안 상대적으로 다양한 체험 기회가 부족했던 아동과 항공·천문 분야에 호기심이 많은 학령기 아동들에게 드론의 원리를 배우고 직접 조종하는 드론 체험부터, 천문대를 방문해 망원경 만들기와 천체 투영실 체험까지 다양한 활동으로 구성되어 알찬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남원시 드림스타트 관계자는 “아이들이 이번 항공우주과학교실을 통해 드론과 우주 과학를 직접 경험하며 미래의 꿈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키고 다채로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유익한 프로그램을 지속해서 발굴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남원=정하복 기자



한돈자조금-대한한돈협회 익산 아동에 장조림·불고기 전달

익산시에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응원하는 든든한 나눔이 전달됐다.

익산시는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대한한돈협회(회장 이기흥)가 한돈 간편식 600팩을 익산시지역아동센터연합회에 전달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이번 나눔은 식사 해결에 어려움을 겪거나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에게 균형 잡힌 먹거리를 제공하고, 지역아동센터의 급식 운영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전달된 물품은 한돈볶음장조림 300팩과 한돈 전통불고기 300팩 등 총 600팩이다. 전달된 간편식은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들의 건강한 식생활을 지원하는 데 활용될 예정이다.

김이남 익산시지역아동센터연합회장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한돈 간편식을 지원해 주셔서 급식 준비에 큰 힘이 된다”며 “지역사회를 위해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 주신 한돈농가와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김제 백구면, 폭염·가뭄 대응 농업현장 점검

김제시 백구면은 연일 이어지는 폭염과 가뭄으로 농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4일부터 지역 내 농업현장 방문을 실시하며 현장 중심의 대응에 나서고 있다.

김은진 백구면장 직무대리는 논공과 밭작물, 벼 재배 포장, 한우 및 젖소 사육농가 등을 차례로 방문해 농작물과 가축의 사육환경을 직접 점검하고 농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폭염 장기화에 따른 농작물 생육 저하와 가축 스트레스, 응수 부족 등 현장의 어려움을 살피며 농업인들에게 폭염 대응 행동요령과 농업재해 예방수칙을 안내하고, 농업용수 확보와 축사 환기 및 냉방시설 관리 등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은진 백구면장 직무대리는 “가뭄이 해갈될 때까지 지속적인 현장점검과 신속한 대응으로 농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한국자유총연맹 부안군지회, 해수욕장 환경정화

변산해수욕장 일원서 전개

한국자유총연맹 부안군지회(회장 황현대)는 지난 7일 변산해수욕장 일원에서 주민과 관광객들을 위한 대규모 환경정화 활동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은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아 부안을 찾는 수많은 관광객에게 깨끗하고 쾌적한 지역 이미지를 심어주고 다시 찾고 싶은 명품 휴양지를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현장에 모인 부안군지회 회원 30여명은 각자 손에 쓰레기

봉투와 집게를 들고 해수욕장 백사장 구석구석을 누비며 피서객들이 버리고 간 각종 생활쓰레기와 플라스틱 폐기물, 일회용품 등을 수거했다.

이어 수거된 쓰레기를 종류별로 분류하는 분리수거 작업을 함께 진행하며 성숙한 시민의식을 실천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구슬땀을 흘린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 덕분에 변산해수욕장 일대는 한층 더 깔끔하고 청결한 모습을 되찾았다.

/부안=신상수 기자



한국자유총연맹 부안군지회(회장 황현대)는 지난 7일 변산해수욕장 일원에서 주민과 관광객들을 위한 대규모 환경정화 활동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사진=부안군>

Y식자재마트 남원점, 생수 2,240개 후원

소울재가복지센터 통해 기부

남원시(시장 양종모)는 지난 6일 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에서 온열 질환 위험에 노출된 취약계층의 건강을 위해 소울재가복지센터(센터장 장진구)가 Y식자재마트 남원점(대표 김진석)의 후원을 받아 생수 2,240개(환가액 1,092만 원 상당)를 기부했다고 밝혔다.

기부된 생수는 독거노인, 장애인 1인가구, 고립가구 등 폭염 취약계층에게 전달되며, 읍면동 행정복지

센터와 지역사회 안전망을 통해 안부를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살피는 등 폭염 대응 돌봄활동과 함께 지원될 예정이다.

Y식자재마트 남원점(대표 김진석)은 올해 춘향제 기간 동안 시민과 관광객들을 위해 시원한 생수를 후원한 데 이어, 이번 폭염 속에서도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을 위해 다시 한번 생수를 기부하는 등 두 기관 모두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을 꾸준히 실천해 오고 있다.

/남원=정하복 기자



익산 모현삼성치과, 칫솔세트 1만개 기탁

익산시는 지난 7일 ‘모현삼성치과(병원장 권태성)’가 익산시 자원봉사센터에 칫솔세트 1만 개(2,500만 원 상당)를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탁식에는 최정호 익산시장과 권태성 모현삼성치과 병원장, 익산시자원봉사센터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기탁품은 익산시 자원봉사센터를 통해 다양한 봉사활동 현장과 취약계층 지원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모현삼성치과는 지난날 익산시 자원봉사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자원봉사자 치료 진료비 할인과 취약계층 대상 의료봉사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권태성 병원장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을 실천할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과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선운사, 고창 노인복지관에 쌀 1,500kg 전달

함께 만드는 복지공동체 실현

대한불교조계종 제24교구 본사 선운사가 지난 6일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한 식생활과 복지 증진을 위해 고창군종합노인복지관에 쌀 1,500kg(약 450만원 상당)을 전달했다.

이번 전달식은 ‘지역속에서, 함께 만드는 복지공동체’를 실현하고, 폭염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지역 어

르신에게 따뜻한 나눔의 손길을 전하고자 마련됐다.

전달식에서 선운사 부주지 윤천스님은 “작은 쌀 한 알에 담긴 마음이 지역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온기로 전달되기를 바란다”며 “부처님의 자비 사상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곁의 소외된 이웃을 살피고 온정을 나누는 데서 시작한다”고 나눔의 의미를 전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무주양수발전소, 장애인탁구교실에 탁구화·유니폼 전달

한국수력원자력(주) 무주양수발전소(이하 무주양수발전소)가 지난 6일 무주군장애인체육회(회장 황인홍)에 탁구화와 유니폼(250만 원 상당)을 기증해 훈훈함을 주고 있다.

이날 기부는 무주양수발전소가 장애인 스포츠 활성화와 생활체육 참여 지원에 동참할 뜻을 밝히면서 성사된 것으로, 무주군장애인탁구교실 참여자 18명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김준영 무주양수발전소 대외협력팀장은 “탁구교실 참여자들이 운동화와 유니폼도 없이 운동한다는 소식을 듣고 지원하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이분들의 체육활동 의욕을 북돋우고 장애인 군민의 안전한 운동 환경 조성을 위해 힘을 보탬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양수발전소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상생 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체육·복지·교육 분야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무주=최희호 기자



정읍 감곡면, 무료 얼음 생수 제공 더위에 목마르면 꺼내 드세요!

정읍시 감곡면이 폭염 속 야외 활동에 나선 주민들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면사무소 입구에서 무료 ‘얼음 생수 냉장고’를 운영한다.

이번 사업은 감곡면지역발전협의회 김봉환 회장이 냉장고와 생수를 기증하면서 마련됐다. 폭염이 잦아지고 강도도 높아지는 가운데 야외 활동이 많은 주민들의 탈수와 일사병, 열사병 등 온열질환을 예방하자는 취지다.

냉장고는 면사무소 입구에 설치돼 주민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생수를 꺼내 마실 수 있다. 특히 폭염 속에서 이동하거나 야외에서 일하는 주민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어 온열질환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성훈 면장은 “기후변화로 폭염의 강도가 높아지면서 주민들의 건강관리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얼음 생수 냉장고 운영을 비롯해 다양한 폭염 대응책을 마련해 주민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올바른 에어컨 사용 전략!

에너지 효율 UP! 전기요금 DWON!

1. 에너지소비효율등급 1등급 제품 사용하기



2. 에어컨과 선풍기 함께 사용하기



3. 에어컨 바람 방향이 위를 향하도록 설정하기



4. 에어컨 필터 청소하기



〈一事一言〉



규제 완화가 이끈 1,270억 투자... 전북, 동물의약품 산업 중심지로 거듭나야

최준호

전북타임스 대표

전북특별자치도가 익산시, 정읍시, 그리고 국내 동물의약품 전문기업 11곳과 총 1,273억 원 규모의 대형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전국 최초로 지정된 ‘차세대 동물의약품 규제자유특구’가 본격적인 실행 단계에 들어선 것이다. 이번 투자협약은 단순한 기업 유치나 자본 유입이라는 수지적 성과를 넘어, 그동안 제도적 한계로 정체되어 있던 도내 바이오·농생명 산업의 체질을 고부가가치 첨단산업으로 전환하는 실질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대규모 민간 투자가 가능했던 가장 핵심적인 동인은 다름 아닌 ‘규제 완화(규제 특례)’에 있다. 그동안 세계 동물의약품 및 헬스케어 시장은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폭발적 증가와 가족 전염병 대응 수요 확대로 매년 가파른 성장세를 보여 왔다. 이미 글로벌 시장은 국가적 차원의 핵심 미래 산업으로 부상했지만, 안타깝게도 국내 동물의약품 기업들은 보수적인 규제 체계와 명확한 인허가 가이드라인의 부재로 인해 심각한 병목현상을 겪어 왔다. 뛰어난 기술력을 확보하고도 모호한 심사 기준 때문에 상용화가 지연되거나 불필요하게 복잡한 독성시험 절차에 가로막혀 시장 진입 자체가 차단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던 까닭이다. 기업 입장에서 이러한 ‘제도적 불확실성’은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가장 큰 위험 요소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북이 이끌어낸 규제자유특구는 현장의 가장 큰 결핍이었던 규제의 벽을 과감히 낮추는 실질적

인 대안이 되었다. 특구 지정에 따라 신약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심사기준이 새로 신설되고, 자가백신 허용 대상이 확대되며, 일부 독성시험 항목이 면제되는 등 파격적인 규제 샌드박스가 적용된다. 개발과 검증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는 터전이 마련되자, ㈜케어사이드(1,050억 원)를 비롯한 유망 기업 11곳이 “전북에 가면 규제 장벽 없이 빠르게 상용화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1,200억 원이 넘는 과감한 투자를 확정된 것이다. 지자체의 규제 혁신 노력이 민간 자본의 투자 유치로 직결된 모범적 사례라 평가할 만하다.

사업의 구체적인 공간 배치와 역할 분담 역시 대단히 현실적이고 전략적이다. 익산은 첨단바이오의약품과 자가백신 실증을 담당하고, 정읍은 독성 검증과 안전성 평가를 맡아 도내 지자체 간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분업화했다. 여기에 한국동물용의약품평가연구원과 국가독성과학연구소 등 지역 내 구축된 공공 연구 인프라, 그리고 도내 대학들의 연구 역량이 유기적으로 결합한다면 타 지자체가 쉽게 따라올 수 없는 막강한 산업적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특구 지정과 투자협약 체결은 사업의 시작점일 뿐, 최종 목적이 아니다. 2027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될 실증사업이 구체적인 결실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풀어야 할 후속 과제가 적지 않다.

첫째, 투자협약이 차질 없는 실제 투행으로 이어지도록 밀착 행정 지원 체계를 가동해야 한다. 부지 확보부터 공장 건설,

실증 장비 구축에 이르기까지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행정적 애로사항을 선제적으로 해결하는 원스톱 지원이 필수적이다.

둘째, 신규 고용 인력(137명 이상)에 대한 체계적인 지역 인재 공급망을 구축해야 한다. 특구 내 유치된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바이오 R&D 전문 인력과 생산 관리 인력을 도내에서 원활히 수급할 수 있도록, 전북대 수의과대학 등 도내 대학들과 연계한 맞춤형 인력 양성 프로그램이나 계약학과 신설 등의 후속 조치가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규제 완화의 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 4년간의 실증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관련 규제 특례가 국가 법령 개정으로 완전히 정착되지 않는다면 기업들의 투자는 일회성에 그칠 위험이 있다. 전북도는 실증 과정에서 얻은 데이터와 입증된 안전성을 바탕으로 중앙부처와 지속해서 협의하며 관련 법 개정을 이끌어내는 정책적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지역 산업 발전의 핵심은 지역이 가진 기존의 강점을 활용해 지속 가능한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는 데 있다. 농생명 자원과 바이오 인프라에 규제 혁신을 결합해 전국 최초로 닛을 올린 전북의 동물의약품 특구가 지역 경제의 든든한 새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 차분하고 착실하게 사업을 추진해 나갈 전북특별자치도와 익산시, 정읍시, 그리고 현장에서 땀 흘린 11개 참여 기업의 성과를 담담히 응원한다.

화·고도화되는 추세다. 채팅 앱을 이용한 성취적 피해나 조건만남 강요, 인터넷 사기, 불법 유흥업소 유입 등 예측하기 힘든 범죄 현장에 가출 청소년들이 이용되거나 가담하고 있다.

가출 청소년의 비행은 예방하고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쉼터나 전문 보호시설을 확충하는 등 제도적 안전망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이에 앞서 한때의 방황을 ‘불량 학생’이라는 낙인으로 단정 짓기보다 따뜻한 관심과 애정을 먼저 보내야 한다. 청소년이 바로 설 수 있는 사회, 그 공간에는 올바른 가치관과 건전한 환경을 만들어 주는 어른들의 책임감이 존재해야 한다.

김제경찰서 신평지구대
경사 박재원

사설

교육청 인사, 선거의 전리품이 돼선 안 된다

전호성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취임 이후 사실상 첫 대규모 정가인사를 앞두고 교육계 안팎에서 ‘코드·보은 인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새 교육감이 자신의 교육철학과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조직을 정비하고 적재적소에 인재를 배치하는 것은 당연한 권한이다. 그러나 그 권한이 선거 공신에게 자리를 나눠주는 수단으로 변질돼서는 안 된다.

이번 인사가 주목받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교육국장과 지역교육장 등 주요 보직을 둘러싸고 선거캠프나 인수위, 특정 교원단체와 관련된 인사들이 거론되면서 교육현장에서는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아직 최종 인사가 확정되기 전인 만큼 이를 곧바로 보은 인사라고 단정하는 것은 선부르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천 교육감이 인사 결과를 통해 이러한 우려가 기우였음을 증명해야 한다.

전임 교육감의 정책을 수정하거나 새로운 교육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하지만 전임자의 사람을 견어내고 자신의 사람을 채우는 것을 개혁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 교육정책의 변화는 사람의 출신과 관계가 아니라 정책의 타당성과 성과로 평가받아야 한다.

특히 교육청의 인사는 다른 행정기관보다 더욱 엄격한 공정성과 투명성이 요구된다. 학생들에게 공정한 평가와 원칙을 가르치고 교사들에게 공정한 교육을 요구하는 기관이 정작 내부 인사에서 연줄과 캠프, 보은이라는 의심을 받는다면 교육행정의 도덕적 권위는 설 자리를 잃는다.

인사의 기준은 명확해야 한다. 누구와 가까운가가 아니라 누가 일을 잘할 수 있는가, 선거 때 누구를 도왔는가가 아니라 전북교육을 위해 어떤 능력과 경험을 갖췄는가가 판단 기준이 돼야 한다. 특정 단체나 세력이 교육행정의 주요 보직을 독점한다는 인상을 줘서도 안 된다.

천 교육감에게 이번 인사는 향후 4년의 교육행정을 가능할 첫 시험대다. 자신을 도운 사람에게 자리를 주는 교육감인지, 능력 있는 사람에게 일을 맡기는 교육감인지 인사 결과가 말해줄 것이다.

교육청의 자리는 선거의 전리품이 아니다. 교육청의 주인은 교육감도, 선거캠프도, 특정 교원단체도 아니다. 학생과 교직원, 그리고 전북도민이다. 천 교육감은 이번 인사를 통해 그 원칙을 분명하게 증명할 것을 기대한다.

▲오늘의시

국수가 먹고 싶다 / 이상국

사는 일은
받쳐줄 물리지 않는 것이라지만
때로는 허름한 식당에서
어머니 같은 여자가 끓여주는
국수가 먹고 싶다

삶의 모서리에서
마음을 다치고
길거리에 나서면
고향 장거리 길로
소 팔고 돌아오듯
뒷모습이 허전한 사람들과

국수가 먹고 싶다

세상은 큰 잔칫집 같아도
어느 곳에선가
늘 울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
마음의 문들은 닫히고

어둠이 허기 같은 저녁
눈물자국 때문에
속이 환히
들여다보이는 사람들과
따뜻한 국수가 먹고 싶다

ㅣ독자투고ㅣ

가출 청소년들에게 관심과 애정을



통계에 따르면 매년 약 2만 명의 청소년이 집을 나선다. 이들 대부분은 가정 내 갈등, 학교폭력, 또래 집단의 폭력, 비행 경험, 혹은 어른들의 무관심을 겪으며 가출을 선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가출 청소년’이란 가정생활이나 사회에 불만을 느껴 집을 나와 생활하는 청소년을 가리킨다. 현행 제도에만 18세 미만 청소년의 가출은 ‘실종’ 수색 대상으로 분류되어 접수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

는 보호자의 가출 신고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채 방치된 청소년도 상당수다.

청소년기는 신체적·정신적·경제적으로 미성숙한 시기이기에, 거리로 몰린 청소년들은 다양한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된다. 당장의 생계비를 마련하기 위해 또래들과 무리를 이루어 강력범죄에 가담하거나, 반대로 심각한 범죄의 표적이 되기도 한다. 더욱이 이들의 행방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아 비극적인 사건에 휘말린 후에야 비로소 발견되는 경우가 많은 점이 심각한 문제다.

최근에는 가출 청소년의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으며, 범죄 유입 양상도 지는

시인 약력 : 1946년 강원도 양양 출생. 1976년 잡지 심상에 시 ‘겨울추상화’를 발표하며 등단했다. 유심지 주간, 백담사만해마을 운영위원장한국작가회의 강원지회장, 설악신문 대표이사,한국작가회의 부이사장,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강원지회장, 한국작가회의 자문위원 등을 지냈다. 제19회 현대불교문학상, 제24회 정치운동문학상 등을 수상했다. 시집으로는 ‘달은 아직 그 달이다’, ‘뿔을 적시며’ 등의 작품을 남겼다.

JBT 전북타임스 Jeonbuk Times 2011년 10월01일 화/ 등록번호 전북 가 -00022(발행우)54990 www.jeonbuktimes.co.kr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77(진북동)5층			
발행, 편집인 송민순		편집국장 장정철	인쇄인 김은주
대표전화 282-9601		업무국 팩스 282-9604	편집국 팩스 283-8800
전주시사 010-9845-4113	군산지국 010-8641-7942	무주지국 010-6411-0835	부안지국 010-7247-3947
중앙지사 010-9878-4271	남원지국 010-2285-3987	임실지국 010-8642-6502	고창지국 010-2258-3734
인후지사 010-8640-6855	익산지국 010-9560-3075	전안지국 010-2433-1721	완주지국 010-3672-0308
팔복지사 010-3015-4791	김제지국 010-4572-6112	장수지국 010-8626-6049	
송전지사- 010-5242-3694	정읍지국 010-2800-2934	순창지국 010-5312-7293	
·구독료 :월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 윤리 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8월 휴간 안내

8월11일(화) ~8월18일(화) 본지는 휴간 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양해 부탁 드리며, 더 나은 지면 으로 찾아 뵙겠습니다

전북타임스

The Jeonbuk Times

익산시, 농촌 일손 부족 '농업 기계화 확대' 총력

올해 예산 37억 6,000만원 투입 현장 중심 농가 지원 정책 펼쳐

익산시가 급격한 고령화와 일손 부족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지역 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올해 '농업 기계화 사업'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익산시는 민생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올해 총 37억 6,000만 원의 사업비를 전격 투입한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시는 농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지원 정책을 속도감 있게 전개하고 있다.

◆ 4대 권역 임대사업소 스마트 고도화...배달 서비스 추적 지원

농가의 농기계 구입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작업 효율을 높이는 임대 사업이 한층 촉매된다. 현재 시는 한열분소를 중심으로 동부, 남부, 북부분소 등 총 4개소의 임대사업소를 유기적으로 운영 중이다.

이곳에서는 17명의 정예 전문 인력이 700여대에 달하는 농업기계를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 지난해 농기계 임대실적은 5,393농가에 6,213대를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매년 10%에 가까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올해는 4억 2,000만 원을 추가로 투입해 트랙터와 파이프밴딩기 등 12종 32대의 신규 장비를 대거 확충했다.

북부분소에는 시설하우스용 보행관리기와 소형 트랙터를, 남부분소에는 보리진압기와 배토기 등을 우선 배치해 지역별 영농 특성에 맞춘 임대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울러 3월부터 6월까지 이어지는 영농 성수기에는 토요일 특별근무를 전격 실시해 적기 영농을 완벽히 지원했다. 최근 중동전쟁 여파로 농자재 및 유류비가 폭등해 시름하는 농가를 위해 올해 임대료 50% 감면 혜택도 전폭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원거리 농업인의 이동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맞춤형 교통 복지도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시는 임대 농업기계 배달을 화물운송으로 적

극 지원하며, 배달 수수료의 80%를 시비로 적극 지원하고 있다.

현재 올해 예산이 대부분 소진될 만큼 인기를 끌고 있어, 향후 추경 예산을 긴급 확보해 공백 없는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민간업체에서 농업용 굴삭기를 임대할 경우에도 수수료의 50%(최대 2일, 20만 원 한도)를 지원해 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있다.

◆ 발농업 기계화율 획기적 전환...고령농 위한 대행 서비스 강화

시는 기계화율이 99%에 달하는 논농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했던 발농업 기계화율을 끌어올리는 데 행정력을 모아왔다.

특히 지난해 주산지로 지정된 여산 지역 양파 농가(500여 농가, 약 227ha)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공을 들인 결과,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발농업 기계화 우수모델 지원 공모사업'에 당당히 선정되는 쾌거를 거뒀다.

이에 따라 올해 양파 정식기 12대를 포함해 총 7종 24대의 양파 전과정 농업기계를 장기 임대 방식으로 현장에 전격 보급한다. 시는 양파 정식 기계화율을 기존 8%에서 44%까지 대폭 끌어올릴 예정이다.

또한 시는 향후 기계화율을 80%까지 확대하기 위해 농식품부 등과 2년차 사업 예산 확보를 위한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왕궁농협 등 2개소에도 4억 원 규모의 논농주산지 일관기계화 장비인 파종기와 콤팩트 등 5종 9대를 장기 임대해 발작물 농가의 작업 효율성을 극대화했다.

영세·소농과 소외계층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 정책도 쉼 없이 추진된다. 영세농의 농가 선호도가 높은 보행관리기, 농산물 건조기, 동력분무기 등 중소형 농업기계를 올해 3억 원 규모로 총 224개소 농가에 맞춤 지원했다. 이는 2015년부터 올해까지 누적 2,165농가에 달하는 규모다.

스스로 인력 수급이 어려운 고령농과 취약 농을 위해서는 남산, 서익산, 성당, 여산 등 4개 농협에 3억 5,000만 원을 투입해 이앙기와 콤팩트 등 대형 장비 6종 7대를 확충하고 '농작업 대행 서비스'를 강력히 뒷받침하고 있다.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노후 경유 농업기계(트랙터, 콤팩트) 15대의 조기 폐차를 성공적으로 유도했으며, 하반기에는 약 2억 원의 예산을 마련해 894만0에 달하는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의 일부(구입량의 50%)를 신속히 지원할 예정이다.

◆ '안전사고 제로화'...예방 중심 교육 및 안전망 구축

시는 농업기계화 확대에 따른 안전사고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예방 중심의 안전망 구축'을 시정 최우선 과제로 다룬다.

최근 신규 농업기계를 구입한 농업인 200여 명을 대상으로 현장 실무 안전교육을 성공적으로 마쳤으며, 목재파쇄기 등 고위험 농업기계에 대한 실습 위주의 안전교육과 직원 직무 역량 강화 교육을 연 10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더불어 소형 지게차와 굴삭기 자격 취득, 응집 및 배관 교육을 전개해 농업인 80여 명이 전문 기술을 습득하도록 전폭 지원했다.

철저한 사고 예방을 위한 시각적인 안전 조치도 빈틈없이 병행된다. 특히 도로 주행형 농업기계의 야간 추돌 사고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경운기와 트랙터 등 총 158대에 안전 등화장치 부착을 무상 지원했다.

아울러 예상치 못한 농작업 사고 발생 시 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막고 안정적인 영농 복귀를 돕기 위해 총 1,847건의 농업기계 종합보험 가입을 지원함으로써 든든한 사회적 울타리를 마련했다.

류숙희 익산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농촌의 고령화와 일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농업기계화를 안전하게 추진하겠다"며 "현장 중심의 맞춤형 장비 지원을 통해 우리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영농에만 전념할 수 있는 안전하고 풍요로운 익산 농촌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농기계임대



농작업대행



임대사업소



양파 정식